

경북지역 고등학생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태도 및 교육요구도 분석

Analysis on Attitude and Education Need for Food Safety of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buk Province

김은정 · 김효정 · 김미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장수생활과학연구소

Kim, Eun-Jung · Kim, Hyochung · Kim, Meer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Human Counseling & Welfare, Inje University

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 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ttitude and education need for food safety of high school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97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buk province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on December, 2008. Frequency, t test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nd chi-square tests were conducted using SPSS V. 14.0. Many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foods produced and distributed in Korea were not safe enough. Over a third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 produced and distributed foods were not safe because of unsanitary food processing. They pointed out food additives threatened food safety the most, which was followed by heavy metal contamination, and endocrine disruptors. Most respondents mentioned difficulties in acquiring information concerning food safety, and obtained information from the media, such as TV and radio. The respondents required a high level of education regarding food safety, and preferred movie clips and broadcasting media the most. Finally, they pointed out food-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to be the most efficient educational institution for food safety.

Keywords : high school student, food safety, attitude, education need

I. 서론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의 식생활 수준이 선진화됨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증가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그러나 풍요로운 식생활 이면에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즉 식품 재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식중독의 발생,

식품첨가물 사용 피해, GMO 식품의 안전성 문제, 환경 오염물질(중금속, 잔류농약, 발암성분, 환경호르몬), 어·육류의 잔류항생물질과 성장호르몬 잔류 문제, 기생충 오염 문제, 방사능 오염식품 피해, 가공 조리 중 생성되는 유해 물질 문제 등(이성갑 외, 2003)은 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 Corresponding author: Kim, Meera

Tel: 053-950-6233, Fax: 053-950-6229

E-mail: meerak@knu.ac.kr

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소비자 인식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손혜은(2006)은 고등학생의 식품 위생 및 안전 의식을 조사하였는데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1.3%가 '매우 불안하다·불안하다'라고 응답하였고 2.4%만이 '매우 안전하다·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식품의 생산과정이나 원재료에 대한 불신이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가장 큰 불안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미(2002)의 강원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식품 안전 상태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었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는 주로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안전성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것으로는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중금속,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유전자변형식품, 포장재료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황은진(2008)의 연구에서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하여 응답자의 56.2%가 '매우 불안하다·불안하다'고 하였고 2.9%만이 '매우 안전하다·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정보는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로부터 가장 많이 얻고 있었다. 조수옥(2008)의 주부들의 일부 식품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 정도가 5점 만점에 평균 2.64점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는 평균 3.71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품위해 요인별 위험순위도는 환경호르몬, 식품첨가물, 광우병, 곰팡이독소, 식중독균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식품 구입시 확인하는 항목은 유통기한, 제조일자, 포장상태, 제조회사, 보존방법, 주성분, 식품첨가물 순이었다. 또한 최정숙 등(2005)의 연구에 의하면 식품 안전성에 대해 평소 '매우 불안'하거나 '불안'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5.4%로 높게 나타났고, 잔류농약, 보존료, 착색료 등의 식품첨가물, 환경호르몬 순으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대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박지연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이 2.63점으로 나타나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에 대해 대체로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그리고 월수입이 높을수록 '잘 관리하지 못함'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최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 안전

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으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초·중·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요구도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래 식품 소비의 주 대상이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식품 안전성 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식품 안전성에 대한 태도 및 교육요구도를 살펴보았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수집되었다. 예비조사는 2008년 11월에 구미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항의 난해한 부분이나 미흡한 점을 수정·보완하여 2008년 12월 15일부터 29일까지 구미, 포항, 문경, 김천의 1개교를 각각 임의 선정하여 총 4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을 통해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부실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297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관련문헌(박종세, 김동술, 1998)과 선행연구들(김숙희, 2006; 손혜은, 2006; 윤지선, 2006)을 참고로 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태도 4문항,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획득 행동 3문항,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요구도 4문항,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V.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각 문항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분석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χ^2 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는 Duncan의 다중범 위분석으로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50.5%, ‘여학생’이 49.5%이었고, 학년은 ‘1학년’과 ‘3학년’이 각각 33.7%, ‘2학년’ 32.7%이었다. 본인이 평가한 자신의 학업성적은 ‘상’이 19.9%, ‘중’이 61.6%, ‘하’가 18.5%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46세 이상’이 71.4%, 어머니의 연령은 ‘45세 이하’가 59.9%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50.5%, ‘전문대졸 이상’이 49.5%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70.4%, ‘전문대졸 이상’이 29.6%이었다.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가정의 생활수준은 ‘보통’이 73.4%로 가장 많았고 ‘넉넉한 편’이 18.9%, ‘어려운 편’이 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297)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학생	150(50.5)
	여학생	147(49.5)
학년	1학년	100(33.7)
	2학년	97(32.7)
	3학년	100(33.7)
학업성적	상	59(19.9)
	중	183(61.6)
	하	55(18.5)
아버지 연령	45세 이하	85(28.6)
	46세 이상	212(71.4)
어머니 연령	45세 이하	178(59.9)
	46세 이상	119(40.1)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150(50.5)
	전문대졸 이상	147(49.5)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209(70.4)
	전문대졸 이상	88(29.6)
생활수준	넉넉한 편	56(18.9)
	보통	218(73.4)
	어려운 편	23(7.7)

2. 식품 안전성에 대한 태도

1)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 <표 2>와 같이 전체적으로 평균이 2.2점으로(1=매우 안전하지 않다, 5=매우 안전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손혜은(2006)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61.3%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하거나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것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성미(2002)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49.7%가 식품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주부를 대상으로 한 황은진(2008)의 연구에서도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하여 56.2%가 ‘매우 불안하거나 불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수옥(2008)의 연구에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이 2.6점으로 나타나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모두 식품 안전성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제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생산·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남학생은 평균 2.3점, 여학생은 2.1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p<.05$).

<표 2>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성별	남학생	2.3±0.7	2.58*
	여학생	2.1±0.6	
학년	1학년	2.3±0.7	1.26
	2학년	2.1±0.6	
	3학년	2.2±0.7	
학업성적	상	2.3±0.7	0.46
	중	2.2±0.6	
	하	2.2±0.6	
아버지 연령	45세 이하	2.3±0.6	0.89
	46세 이상	2.2±0.7	
어머니 연령	45세 이하	2.3±0.7	1.11
	46세 이상	2.2±0.6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2.2±0.6	-0.51
	전문대졸 이상	2.2±0.7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2.2±0.7	0.25
	전문대졸 이상	2.2±0.7	
생활수준	넉넉한 편	2.2±0.8	0.28
	보통	2.2±0.6	
	어려운 편	2.1±0.5	
평균±표준편차 ¹⁾		2.2±0.6	

* $p<.05$

¹⁾1=매우 안전하지 않다, 5=매우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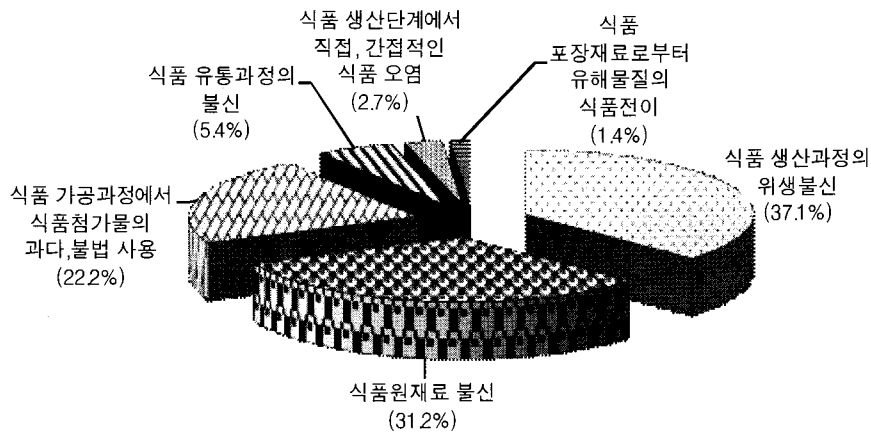
2) 우리나라에서 생산·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매우 안전하지 않다’와 ‘별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그림 1]과 같이 ‘식품 생산과정의 위생불신’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품원재료 불신’ 31.2%, ‘식품 가공과정에서 식품첨가물의 과다·불법 사용’ 22.2%, ‘식품 유통과정의 불신’ 5.4%, ‘식품 생산단계에서 직접·간접적인 식품 오염’ 2.7%, ‘식품 포장재로부터 유해물질의 식품전이’ 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손해은(2006),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윤지선(2006)의 연구에서도 ‘식품의 생산과정을 신뢰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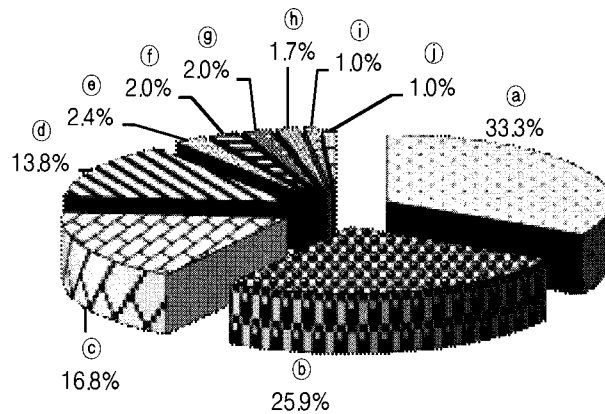
수 없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식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식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그림 2]와 같이 ‘식품첨가물’이 33.3%, ‘식품의 중금속 오염’이 25.9%,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16.8%, ‘식품에 이물질 혼입’이 13.8%, ‘식중독’이 2.4%, ‘위해가능 영양성분’과 ‘유전자재조합식품’이 각각 2.0%, ‘방사선조사식품’이 1.7%, ‘잔류농약’과 ‘기타’가 각각 1.0%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인간의 이기심, 광우병 등이 있었다. 식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식



[그림 1] 우리나라에서 생산·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① 식품첨가물, ② 식품의 중금속 오염, ③ 내분비계 장애물질, ④ 식품에 이물질 혼입, ⑤ 식중독, ⑥ 위해가능 영양성분, ⑦ 유전자재조합식품, ⑧ 방사선조사식품, ⑨ 잔류농약, ⑩ 기타

[그림 2] 식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

품첨가물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최근 방송매체 등에서 식품첨가물의 위해성에 관한 보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은 식품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 식품의 모양, 맛, 냄새 등을 좋게 해 주는 등 중요한 기능도 하고 있으므로 식품첨가물을 무조건 위해한 요소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한왕근, 이귀주(1991)의 연구에서도 식품 안전성을 위해하는 요인으로 식품첨가물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화영(2007),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성미(2002),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미하(2008),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수옥(2008),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숙희(2006)의 연구에서는 환경호르몬을,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한 백병성, 이영희(2006)의 연구에서는 유전자 조작 등 오염(유해) 물질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남희정 등(2007)의 연구에서는 발암 물질을 식품의 안전성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응답함으로써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식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식품 섭취시 안전성이 가장 염려되는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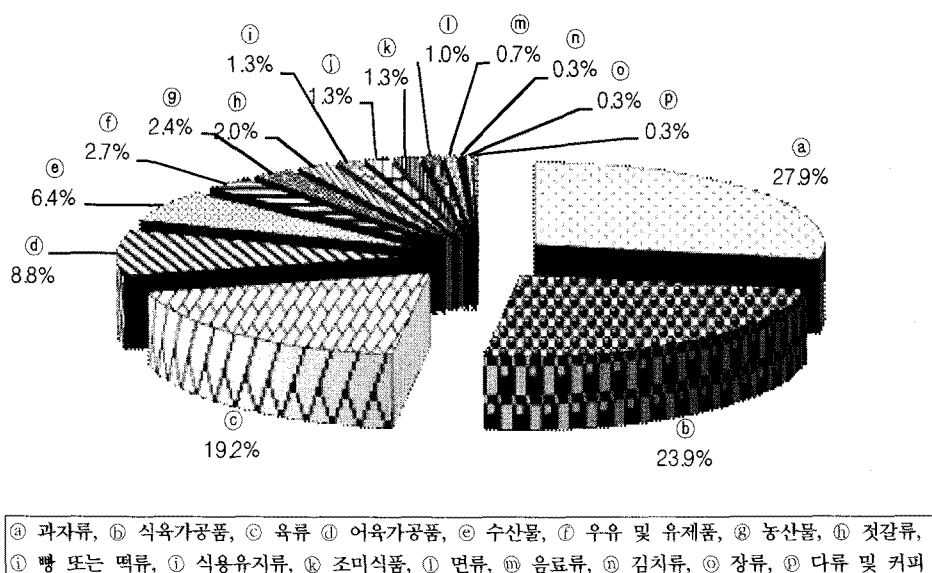
식품을 섭취할 때 안전성이 가장 염려되는 식품을 질의

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과자류’가 2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식육가공품’ 23.9%, ‘육류’ 19.2%, ‘어육가공품’ 8.8%, ‘수산물’ 6.4%, ‘우유 및 유제품’ 2.7%, ‘농산물’ 2.4%, ‘젓갈류’ 2.0%, ‘빵 또는 떡류’, ‘식용유지류’, ‘조미식품’이 각각 1.3%, ‘면류’ 1.0%, ‘음료류’ 0.7%, ‘김치류’, ‘장류’, ‘다류 및 커피’가 각각 0.3%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남희정 등(2007)의 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 판매하는 도시락, 햄·소시지 순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한 최정숙 등(2005)의 연구에서는 도시락, 수입식품, 패스트푸드, 햄과 소시지 등 식육가공식품 순으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 이들 연구결과 및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 볼 때 청소년이나 성인들은 햄, 소시지와 같은 식육가공품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과자류와 식육가공품에 대한 염려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주로 학생들이 구입하고 즐겨먹는 식품이 과자 및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와 같은 식육가공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품을 섭취할 때 안전성이 가장 염려되는 식품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획득 행동

1) 정보획득의 용이성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획득의 용이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평균이 2.4점으로(1=매우 어렵다, 5=매



[그림 3] 식품 섭취시 안전성이 가장 염려되는 식품

〈표 3〉 정보획득의 용이성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성별	남학생	2.3±0.7	-1.25
	여학생	2.4±0.7	
학년	1학년	2.3±0.6	0.45
	2학년	2.3±0.8	
	3학년	2.4±0.7	
학업성적	상	2.3±0.7	0.40
	중	2.4±0.7	
	하	2.4±0.7	
아버지 연령	45세 이하	2.4±0.7	0.31
	46세 이상	2.4±0.7	
어머니 연령	45세 이하	2.3±0.7	-0.59
	46세 이상	2.4±0.7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2.4±0.7	0.18
	전문대졸 이상	2.4±0.7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2.4±0.7	0.24
	전문대졸 이상	2.4±0.7	
생활수준	넉넉한 편	2.3±0.7	2.27
	보통	2.4±0.7	
	어려운 편	2.1±0.5	
평균±표준편차 ¹⁾		2.4±0.7	

¹⁾ 1=매우 어렵다, 5=매우 쉽다

우 쉽다) 보통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 학생들이 식품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손혜은(2006)의 연구와 대학생으로 한 윤지선(2006)의 연구에서도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와 ‘매우 어렵다’가 각각 50.0%, 48.1%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을 위해 앞으로 학교에서 수업시간 뿐 아니라 점심시간에 교내방송이나 급식실 스크린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식품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획득의 용이성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정보원에 따른 정보획득 정도

정보원에 따라 식품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정도를 살펴보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가 평균 4.0점으로 (1=전혀 얻지 않는다, 5=많이 얻는다) 가장 정보를 많이 얻는 정보원으로 나타났고, ‘인터넷’이 3.8점, ‘신문, 잡지, 서적 등 인쇄매체’가 3.0점, ‘가족, 친척’이 2.9점, ‘친구’가 2.6점, ‘학교교육’이 2.1점 순으로 나타났다(<표 4>). 강경남(1989), 김선미(2002), 김숙희(2006), 손혜은(2006), 이기현(2005), 윤지선(2006), 조수옥(2008), 황

은진(2008), 김효정, 김미라(2009)의 연구에서도 방송매체를 통해 식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령층이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획득을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으므로 방송매체에서의 식품 안전성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보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방송매체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및 가정에 컴퓨터 보급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이 생활화되고 있어, 고등학생들도 인터넷을 통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련기관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정보를 가장 적게 얻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교육에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정보제공이 좀 더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정보원에 따른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획득 정도가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방송매체에 의해 정보를 얻는 정도는 학년,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2, 3학년에 비해 방송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p<.01$),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에 비해 방송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한편 인터넷과 학교교육에 의해 정보를 얻는 정도는 학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2, 3학년에 비해 1학년이 인터넷($p<.01$)이나 학교교육($p<.05$)을 통해 정보를 더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친척에 의해 정보를 얻는 정도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가족, 친척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에 비해 1, 3학년이 가족, 친척을 통해 정보를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집단에 비해 ‘중’, ‘하’인 집단인 경우 가족, 친척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친구에 의해 정보를 얻는 정도는 성별, 아버지 학력,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를 통해 정보를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01$),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소 친구와의 대화

(표 4) 정보원에 따른 정보획득 정도

번호	구분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인터넷		신문, 잡지, 서적 등 인쇄매체		가족, 친척		친구		학교교육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성별	남학생	3.4±0.9	-1.40	3.9±0.9	0.09	2.9±1.1	-1.08	2.7±1.1	-2.50*	2.3±1.1	-3.84***	2.1±0.8	-1.70
	여학생	4.1±0.8		3.8±1.0		3.0±1.0		3.0±1.0		2.8±1.0		2.2±0.9	
학년	1학년	4.2±0.8a		4.1±0.8a		3.0±1.0	0.16	3.0±1.0a		2.6±1.1		2.3±0.8a	
	2학년	4.0±0.8ab	5.06**	3.7±1.0b	7.14**	3.0±1.1		2.6±1.0b	5.10**	2.5±1.1	0.55	2.0±0.8b	3.98*
	3학년	3.9±1.0b		3.7±1.0b		2.9±1.0		3.0±1.0a		2.6±1.1		2.1±0.8ab	
학업 상 하	상	4.0±1.0		3.9±1.0		2.9±1.0		2.5±1.1b		2.5±1.1		2.0±0.8	
	중	4.1±0.9	0.21	3.9±0.9	0.38	3.0±1.0	0.68	2.9±1.0a	0.74**	2.6±1.1	0.82	2.2±0.9	0.49
	하	4.0±0.9		3.8±1.0		2.9±1.1		3.0±1.1a		2.7±1.0		2.2±0.8	
아버지 연령	45세 이하	4.0±1.0	-0.37	3.9±0.8	0.37	2.8±1.1	-1.79	2.8±1.1	-0.43	2.6±1.1	0.74	2.1±0.9	0.17
	46세 이상	4.1±0.8		3.8±1.0		3.0±1.0		2.9±1.0		2.5±1.1		2.1±0.8	
어머니 연령	45세 이하	4.0±1.0	-0.53	3.9±0.9	0.40	2.9±1.1	-1.33	2.8±1.1	-1.16	2.6±1.1	0.33	2.1±0.8	-0.39
	46세 이상	4.1±0.8		3.8±0.9		3.1±0.9		3.0±1.0		2.5±1.0		2.2±0.9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4.2±0.8	2.18*	3.9±0.9	1.86	2.9±1.0	-0.96	2.9±1.0	-0.20	2.7±1.1	2.28*	2.2±0.8	0.81
	전문대졸 이상	3.9±1.0		3.7±0.9		3.0±1.0		2.9±1.1		2.4±1.1		2.1±0.8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4.1±0.8	1.84	3.9±0.9	0.95	2.9±1.0	-1.00	2.8±1.0	-0.69	2.6±1.1	0.31	2.1±0.8	0.34
	전문대졸 이상	3.9±1.0		3.8±1.0		3.1±1.0		2.9±1.1		2.5±1.0		2.1±0.9	
생활 수준	낙후한 편	4.0±0.7		4.0±0.9		3.2±1.0	1.41	2.8±1.1	1.57	2.3±1.1b		2.1±0.8	
	보통	4.0±0.9	0.14	3.8±0.9	0.80	2.9±1.0		2.9±1.0		2.6±1.1b	4.41*	2.2±0.8	0.52
	아름다운 편	4.1±0.9		3.8±0.9		2.8±1.1		3.2±1.2		3.0±1.1a		2.0±1.0	
평균±표준편차 ¹⁾		4.0±0.9		3.8±0.9		3.0±1.0		2.9±1.0		2.6±1.1		2.1±0.8	

*p<.05, **p<.01, ***p<.001;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분석 결과임.

1) = 전혀 알지 않는다, 5= 많이 알는다

(표 5) 정보원에 따른 정보의 신뢰도

번수	구분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신문, 잡지, 서적 등 인쇄매체		가족, 친척		인터넷		학교교육		친구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성별	남학생	3.9±0.8	-0.45	3.6±1.0	-1.67	3.3±1.0	-1.82	3.3±1.0	-0.24	3.1±1.0	-1.82	2.7±1.0	-4.36***
	여학생	3.9±0.9		3.7±0.9		3.5±0.8		3.3±0.9		3.3±0.9		3.1±0.8	
학년	1학년	3.9±0.8		3.7±0.9	1.03	3.4±0.9	1.94	3.5±0.9a	3.98*	3.2±0.9	2.69	2.8±0.9	0.54
	2학년	3.9±1.0	0.72	3.6±0.9		3.3±0.9		3.2±0.9b		3.0±1.0		2.9±0.8	
	3학년	3.8±0.9		3.7±0.9		3.5±0.9		3.2±1.0b		3.4±0.9		3.0±1.0	
학년 성격	상	3.8±0.9		3.6±0.9		3.3±0.9		3.3±1.0		3.0±1.0		2.7±1.0b	3.51*
	중	3.9±0.7	0.15	3.7±0.9	2.71	3.4±0.9	1.31	3.3±1.0	0.27	3.3±1.0	1.34	2.9±0.9ab	
	하	3.9±0.8		3.4±1.0		3.5±1.0		3.3±1.0		3.3±0.8		3.1±0.8a	
아버지 연령	45세 이하	3.8±1.0	-0.70	3.5±1.0	-1.33	3.2±0.9	-2.43*	3.4±0.9	1.50	3.1±0.9	-0.81	2.8±0.8	-1.64
	46세 이상	3.9±0.8		3.7±0.9		3.5±0.9		3.3±1.0		3.2±1.0		3.0±0.9	
어머니 연령	45세 이하	3.9±0.9	-0.56	3.7±0.9	0.39	3.3±0.9	-1.30	3.3±1.0	0.81	3.2±1.0	-1.10	2.9±0.9	-0.05
	46세 이상	3.9±0.8		3.6±0.9		3.5±0.9		3.3±0.9		3.3±0.9		2.9±1.0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4.0±0.8	1.57	3.6±0.9	-0.38	3.4±0.9	0.50	3.5±0.8	3.34**	3.2±0.9	0.27	3.0±0.9	2.26*
	전문대졸 이상	3.8±0.9		3.7±1.0		3.4±0.9		3.1±1.0		3.2±1.0		2.8±0.9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3.9±0.9	0.53	3.6±0.9	-0.43	3.4±0.9	0.29	3.4±0.9	1.29	3.2±1.0	0.76	2.9±0.9	0.68
	전문대졸 이상	3.8±0.9		3.7±0.9		3.4±0.9		3.2±1.0		3.2±0.4		2.8±0.9	
생활 수준	낙낙한 편	3.7±0.9		3.5±1.0	1.07	3.3±1.1	0.33	3.3±1.1	1.19	3.0±1.1	2.87	2.6±0.9	3.06
	보통	3.9±0.8	2.30	3.7±0.9		3.4±0.8		3.4±0.9		3.3±0.9		3.0±0.9	
	아려운 편	3.8±1.0		3.5±1.0		3.5±0.9		3.0±1.1		3.2±0.8		3.0±1.0	
평균±표준편차 ¹⁾		3.9±0.9		3.7±0.9		3.4±0.9		3.3±1.0		3.3±1.0		2.9±0.9	

*p<.05, **p<.01, ***p<.001;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분석 결과임.

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매우 신뢰한다

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의 경우($p<.05$),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생활수준이 어려운 편인 경우 친구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한편 인쇄매체에 의해 정보를 얻는 정도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정보원에 따른 정보의 신뢰도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정보원에 따른 신뢰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신뢰도가 평균 3.9점으로(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매우 신뢰한다) 가장 높았고, ‘신문, 잡지, 서적 등 인쇄매체’가 3.7점, ‘가족, 친척’이 3.4점, ‘인터넷’이 3.3점, ‘학교교육’이 3.2점, ‘친구’가 2.9점 순으로 나타났다(<표 5>).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의 경우 식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건 발생 시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고, 가족, 친척은 신뢰감으로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얻는 식품 안전성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는데 비해,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는 앞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신뢰도가 다른 정보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구를 통해 얻는 정보의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또래 친구에게서 얻는 정보는 친구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족, 친척을 통해 얻는 정보의 신뢰도는 아버지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버지 연령이 46세 이상인 경우 가족, 친척을 통해 얻는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인터넷 정보의 신뢰도는 학년,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1학년이 2, 3학년에 비해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정보를 더 많이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전문대졸 이상에 비해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친구를 통해 얻는 정보의 신뢰도는 성별, 학업성적,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p<.001$), 학업성적이 ‘하’인 집단이($p<.05$),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p<.05$) 친구를 통해 얻는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매체, 인쇄매체, 학교교육을 통해

얻는 정보의 신뢰도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요구도

1) 학교에서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학교에서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이 평균 3.9점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이 학교에서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이 대체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은 평균 3.8점, 여학생은 4.1점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교에서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를 앞에서 살펴본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결과와 연관시켜 볼 때,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학교에서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성별	남학생	3.8±1.0	-3.01**
	여학생	4.1±0.8	
학년	1학년	4.0±0.9	0.96
	2학년	3.9±1.0	
	3학년	3.9±0.9	
학업성적	상	3.8±0.9	0.40
	중	4.0±0.9	
	하	4.0±1.0	
아버지 연령	45세 이하	4.0±0.9	0.42
	46세 이상	3.9±0.9	
어머니 연령	45세 이하	3.9±0.9	0.08
	46세 이상	3.9±0.9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4.0±0.8	1.48
	전문대졸 이상	3.9±1.0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3.9±0.9	-0.73
	전문대졸 이상	4.0±0.9	
생활수준	넉넉한 편	3.9±0.9	0.20
	보통	3.9±0.9	
	어려운 편	4.0±1.0	
평균±표준편차 ¹⁾		3.9±0.9	

** $p<.01$

¹⁾ 1=전혀 필요없다, 5=매우 필요하다

(표 7)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내용 요구도

변수	구분	식품첨가물		위해가능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		내분비계 장애물질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성별	남학생	3.8±1.0	-1.91	3.6±1.1	-4.09***	3.6±1.2	-1.75	3.7±1.1	0.05
	여학생	4.0±0.9		4.0±0.9		3.8±0.9		3.7±1.0	
학년	1학년	4.0±1.0	0.62	3.6±1.1	0.27	3.6±1.1		3.6±1.0	0.15
	2학년	4.1±0.8		3.8±1.0		3.9±1.0		3.9±1.0	
	3학년	3.8±1.0		3.9±1.0		3.8±1.1		3.7±1.1	
학업성적	상	3.8±1.0	0.48	3.6±0.9	0.18	3.8±1.0	0.45	3.8±1.0	0.85
	하	4.0±1.0		3.7±0.9		3.8±1.1		3.7±1.1	
아버지 연령	45세 이하	3.9±1.0	-0.17	3.7±1.1	-1.03	3.7±1.1	-0.30	3.6±1.1	-0.09
	46세 이상	3.9±0.9		3.8±1.0		3.7±1.0		3.8±1.0	
어머니 연령	45세 이하	3.9±1.0	-0.13	3.9±1.0	1.57	3.7±1.1	0.02	3.7±1.1	-0.17
	46세 이상	3.9±0.9		3.7±1.0		3.7±1.0		3.7±1.0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4.0±0.9	1.93	3.9±1.0	1.57	3.8±1.0	0.38	3.7±1.1	0.39
	전문대졸 이상	3.8±1.0		3.7±1.0		3.7±1.0		3.7±1.0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4.0±1.0	1.02	3.8±1.0	0.87	3.7±1.0	0.09	3.8±1.1	0.94
	전문대졸 이상	3.8±1.0		3.7±1.0		3.7±1.1		3.6±1.0	
생활수준	낙담한 편	3.9±1.0	0.81	3.7±1.1	0.65	3.8±1.0	0.97	3.7±1.0	0.64
	보통	4.0±0.9		3.8±1.0		3.7±1.0		3.7±1.0	
평균±표준편차 ¹⁾	어려운 편	3.7±1.2		3.7±1.3		3.4±1.4		3.5±1.3	
	편안한 편	3.9±1.0		3.8±1.0		3.7±1.0		3.7±1.0	
변수	구분	중금속오염		방사선조사식품		식중독		장류농약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평균±표준편차 ¹⁾	t/F value
성별	남학생	3.7±1.1	-0.71	3.6±1.1	-0.21	3.5±1.0	0.39	3.4±1.1	-1.04
	여학생	3.8±0.9		3.6±1.0		3.5±0.9		3.5±1.0	
학년	1학년	3.7±1.0	0.45	3.5±1.0	0.07	3.5±1.0	0.08	3.4±1.0	0.22
	2학년	3.8±1.0		3.8±1.0		3.7±0.9		3.6±1.0	
	3학년	3.6±1.1		3.5±1.1		3.4±1.0		3.4±1.1	
학업성적	상	3.7±1.0	0.89	3.6±1.0	0.98	3.4±1.0	0.51	3.4±1.0	0.86
	하	3.7±1.0		3.6±1.1		3.5±1.0		3.5±1.0	
아버지 연령	45세 이하	3.7±1.0	-0.09	3.5±1.1	-1.09	3.5±1.0	0.56	3.4±1.0	-0.21
	46세 이상	3.7±1.0		3.6±1.0		3.5±1.0		3.5±1.0	
어머니 연령	45세 이하	3.8±1.0	0.83	3.6±1.1	-0.66	3.5±1.0	0.56	3.3±1.0	0.13
	46세 이상	3.7±1.0		3.7±1.0		3.5±0.9		3.3±0.9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3.8±0.9	0.70	3.6±1.0	0.57	3.6±1.0	1.00	3.5±1.0	-0.02
	전문대졸 이상	3.7±1.0		3.6±1.0		3.4±1.0		3.5±1.1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3.7±1.0	0.71	3.6±1.0	0.21	3.5±0.9	-0.35	3.4±1.0	-0.36
	전문대졸 이상	3.7±1.1		3.6±1.0		3.5±1.0		3.5±1.1	
생활수준	낙담한 편	3.8±0.9	0.06	3.7±1.0	0.39	3.5±1.0	0.01	3.5±1.0	0.04
	보통	3.7±1.0		3.6±1.0		3.5±0.9		3.4±1.0	
평균±표준편차 ¹⁾	어려운 편	3.7±1.3		3.4±1.5		3.5±1.1		3.5±1.3	
	편안한 편	3.7±1.0		3.6±1.0		3.5±1.0		3.5±1.0	

***p<.001

1) 1=전혀 교육받고 싶지 않다, 5=매우 교육받고 싶다

2)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내용 요구도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내용 요구도를 보면 <표 7>과 같이 식품첨가물이 평균 3.9점, 위해가능 영양성분이 3.8점, 유전자재조합식품이 3.7점,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중금속 오염이 각각 3.7점, 방사선조사식품이 3.6점, 식중독과 잔류농약이 각각 3.5점 순으로 모두 3.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앞의 문항에서 식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느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희정 등(2007)의 연구에서는 중금속, 조류독감, 구제역, 돼지콜레라, 광우병, 방사선조사식품, 항생물질과 잔류농약, 유전자재조합식품, 알레르기 발생물질, 식품첨가물, 자연독 순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위해가능 영양성분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평균 4.0점으로 남학생의 평균 3.6점보다 높아 여학생들이 위해가능 영양성분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한편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금속 오염, 방사선조사식품, 식중독, 잔류농약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3) 선호하는 교육자료 형태

학교에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선호하는 교육자료 형태로는 <표 8>과 같이 ‘영화, 슬라이드 등의 영상매체를 이용한 교육’이 43.8%,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이용한 교육’이 38.7%로 영상매체와 방송매체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통신문, 팸플릿, 유인물 등을 이용한 교육’이 5.1%, ‘인터넷을 이용한 웹교육’이 4.7%, ‘그림, 사진, 게시판, 포스터 등을 이용한 교육’이 4.4%, ‘인형, 모형, 역할극 등을 이용한 교육’과 ‘서적을 이용한 교육’이 각각 1.7%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책보다는 영상매체나 방송매체가 덜 지루하고 시각적으로 더 관심을 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호하는 교육자료 형태는 성별, 학년,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교육 받기를 가장 원했고(50.0%), 다음이 방송매체(30.0%)이었다. 그러나 여학생은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교육받기를 가장 원했고(47.6%), 그 다음이 영상매체를 통해서(37.4%)이었다($p<.01$). 학년별 차이를 보면 1, 2학년은 방송매체를 통

<표 8> 선호하는 교육자료 형태

N(%)

변수	구분	영상매체	방송매체	통신문, 팸플릿, 유인물	웹교육	그림, 사진, 게시판, 포스터	인형, 모형, 역할극	서적	계	χ^2 value
성별	남학생	75(50.0)	45(30.0)	9(6.0)	10(6.7)	5(3.3)	3(2.0)	3(2.0)	150(100.0)	12.75**
	여학생	55(37.4)	70(47.6)	6(4.1)	4(2.7)	8(5.4)	2(1.4)	2(1.4)	147(100.0)	
학년	1학년	37(37.0)	45(45.0)	8(8.0)	1(1.0)	7(7.0)	1(1.0)	1(1.0)	100(100.0)	23.78*
	2학년	39(40.2)	42(43.3)	2(2.1)	7(7.2)	1(1.0)	3(3.1)	3(3.1)	97(100.0)	
	3학년	54(54.0)	28(28.0)	5(5.0)	6(6.0)	5(5.0)	1(1.0)	1(1.0)	100(100.0)	
학업성적	상	23(39.0)	24(40.7)	5(8.5)	4(6.8)	3(5.1)	0(0.0)	0(0.0)	59(100.0)	10.55
	중	81(44.3)	73(39.9)	6(3.3)	7(3.8)	8(4.4)	3(1.6)	5(2.7)	183(100.0)	
	하	26(47.3)	18(32.7)	4(7.3)	3(5.5)	2(3.6)	2(3.6)	0(0.0)	55(100.0)	
아버지연령	45세 이하	32(37.6)	36(42.4)	6(7.1)	6(7.1)	3(3.5)	2(2.4)	0(0.0)	85(100.0)	6.28
	46세 이상	98(46.2)	79(37.3)	9(4.2)	8(3.8)	10(4.7)	3(1.4)	5(2.4)	212(100.0)	
어머니연령	45세 이하	71(39.9)	72(40.4)	11(6.2)	12(6.7)	7(3.9)	3(1.7)	2(1.1)	178(100.0)	7.90
	46세 이상	59(49.6)	43(36.1)	4(3.4)	2(1.7)	6(5.0)	2(1.7)	3(2.5)	119(100.0)	
아버지학력	고졸 이하	61(40.7)	64(42.7)	5(3.3)	8(5.3)	7(4.7)	4(2.7)	1(0.7)	150(100.0)	7.56
	전문대졸 이상	69(46.9)	51(34.7)	10(6.8)	6(4.1)	6(4.1)	1(0.7)	4(2.7)	147(100.0)	
어머니학력	고졸 이하	88(42.1)	86(41.1)	6(2.9)	12(5.7)	10(4.8)	5(2.4)	2(1.0)	209(100.0)	14.32*
	전문대졸 이상	42(47.7)	29(33.0)	9(10.2)	2(2.3)	3(3.4)	0(0.0)	3(3.4)	88(100.0)	
생활수준	넉넉한 편	26(46.4)	22(39.3)	4(7.1)	1(1.8)	2(3.6)	0(0.0)	1(1.8)	56(100.0)	7.00
	보통	94(43.1)	84(38.5)	10(4.6)	13(6.0)	9(4.1)	4(1.8)	4(1.8)	218(100.0)	
	어려운 편	10(43.5)	9(39.1)	1(4.3)	0(0.0)	2(8.7)	1(4.3)	0(0.0)	23(100.0)	
계		130(43.8)	115(38.7)	15(5.1)	14(4.7)	13(4.4)	5(1.7)	5(1.7)	297(100.0)	

* $p<.05$, ** $p<.01$

해서 교육 받기를 원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나, 3학년은 영상매체를 통해서 교육 받기를 원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p<.05$). 이런 결과와 같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선호하는 교육자료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대상에 따라 적합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머니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고졸 이하의 집단과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 모두 영상매체와 방송매체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은 통신문, 팸플릿, 유인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비율이 고졸 이하 집단에 비해 높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웹 교육을 받고자 하는 비율은 고졸 이하인 집단이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5$).

4) 식품 안전성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기관

조사대상자의 58.6%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은 식품관련 정부기관에서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학교가 21.5%, 가정이 9.1%, 소비자단체가 7.7%, 인터넷을 이용한 웹교육이 2.4%, 기타가 0.7% 순으로 나왔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군대가 있었다(<표 9>). 그러나 식품관련 정부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식품관련 정부기관에서 정기적인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을 제

공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관련 정부기관 다음으로는 학교에서의 교육이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수업 시간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활용한 교육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연계교육, 학교 홈페이지에 식품 안전성 관련 코너를 만들어 교육과 상담이 병행되도록 하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자의 학업성적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기관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학업성적이 '하'인 집단은 '상', '중'인 집단에 비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기관으로 학교와 소비자단체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았으나 식품관련 정부기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p<.05$). 그리고 아버지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아버지의 연령이 46세 이상 집단의 경우 45세 이하 집단에 비해 학교 및 가정을 식품 안전성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기관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p<.05$).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태도 및 교육요구도를

<표 9> 식품 안전성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기관

N(%)

변수	구분	식품관련 정부기관	학교	가정	소비자단체	웹교육	기타	계	χ^2 value
성별	남학생	84(56.0)	31(20.7)	19(12.7)	11(7.3)	4(2.7)	1(0.7)	150(100.0)	4.91
	여학생	90(61.2)	33(22.4)	8(5.4)	12(8.2)	3(2.0)	1(0.7)	147(100.0)	
학년	1학년	58(58.0)	24(24.0)	8(8.0)	6(6.0)	4(4.0)	0(0.0)	100(100.0)	5.84
	2학년	60(61.9)	19(19.6)	7(7.2)	9(9.3)	1(1.0)	1(1.0)	97(100.0)	
	3학년	56(56.0)	21(21.0)	12(12.0)	8(8.0)	2(2.0)	1(1.0)	100(100.0)	
학업 성적	상	40(67.8)	10(16.9)	7(11.9)	1(1.7)	1(1.7)	0(0.0)	59(100.0)	22.56*
	중	110(60.1)	38(20.8)	17(9.3)	15(8.2)	3(1.6)	0(0.0)	183(100.0)	
	하	24(43.6)	16(29.1)	3(5.5)	7(12.7)	3(5.5)	2(3.6)	55(100.0)	
아버지 연령	45세 이하	55(64.7)	15(17.6)	3(3.5)	6(7.1)	4(4.7)	2(2.4)	85(100.0)	13.50*
	46세 이상	119(56.1)	49(23.1)	24(11.3)	17(8.0)	3(1.4)	0(0.0)	212(100.0)	
어머니 연령	45세 이하	111(62.4)	32(18.0)	14(7.9)	13(7.3)	6(3.4)	2(1.1)	178(100.0)	7.83
	46세 이상	63(52.9)	32(26.9)	13(10.9)	10(8.4)	1(0.8)	0(0.0)	119(100.0)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94(62.7)	32(21.3)	11(7.3)	10(6.7)	3(2.0)	0(0.0)	150(100.0)	4.56
	전문대졸 이상	80(54.4)	32(21.8)	16(10.9)	13(8.8)	4(2.7)	2(1.4)	147(100.0)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125(59.8)	48(23.0)	14(6.7)	17(8.1)	4(1.9)	1(0.5)	209(100.0)	6.40
	전문대졸 이상	49(55.7)	16(18.2)	13(14.8)	6(6.8)	3(3.4)	1(1.1)	88(100.0)	
생활 수준	넉넉한 편	33(58.9)	11(19.6)	4(7.1)	5(8.9)	3(5.4)	0(0.0)	56(100.0)	4.85
	보통	127(58.3)	49(22.5)	20(9.2)	16(7.3)	4(1.8)	2(0.9)	218(100.0)	
	어려운 편	14(60.9)	4(17.4)	3(13.0)	2(8.7)	0(0.0)	0(0.0)	23(100.0)	
계		174(58.6)	64(21.5)	27(9.1)	23(7.7)	7(2.4)	2(0.7)	297(100.0)	

* $p<.05$

살펴보기 위하여 경북지역의 고등학생 29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Windows V.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 분석, 일원분산분석, Duncan의 다중범위분석,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많은 응답자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주된 이유는 식품 생산과정의 위생불신, 식품원재료 불신, 식품 가공과정에서 식품첨가물의 과다·불법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식품첨가물, 식품의 중금속 오염, 내분비계 장애물질, 식품에 이물질 혼입, 식중독 순이었다. 식품 섭취시 안전성이 가장 염려되는 식품으로는 과자류, 식육가공품, 육류, 어육가공품, 수산물 순이었다. 한편 식품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가 대체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가장 많이 얻었고, 이들을 통해 얻는 정보를 가장 신뢰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학교에서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생각하고 있었고, 식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모두 3.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선호하는 교육자료의 형태는 영화, 슬라이드 등의 영상매체를 이용한 교육과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식품 안전성에 관련된 교육은 식품관련 정부기관에서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결과, 응답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높은 편이나 그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를 통해서 정보를 가장 적게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므로 학교에서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자유재량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교육하고, 유인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가정과 연계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학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식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 식품첨가물, 위해가능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 중금속 오염, 내분비계 장애물질, 방사선조사식품, 식중독, 잔류농약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고 영상매체 및 방송매체를 통한 교육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교육대상과 주제에 따라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 자료형태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고등학생, 식품 안전성, 태도, 교육요구도

참 고 문 헌

- 강경남. (1989). 서울시내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식품오염에 대한 의식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미. (2002). 강원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 조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희. (2006). 식품 위해물질의 위해성 전달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편.
- 김효정, 김미라. (2009). 소비자의 식품 위해요인에 대한 인식도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탐색 행동.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19(1), 116-129.
- 남희정, 김영순. (2006). 일부 수도권 거주 주민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9(2), 126-142.
- 박종세, 김동술. (1998). **꼭 알아야 할 식품위생**. 서울: 유림문화사.
- 박지연, 최은희, 최정화, 심상국, 박형수, 박기환, 문혜경, 류경. (2009). 소비자의 식품안전 인지도와 안전행동 평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24(1), 1-11.
- 백병성, 이영희. (2006). 식품첨가물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과 정책방향 -소비자정보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7(3), 133-150.
- 손혜은. (2006). 고등학생의 식품위생 및 안전 의식과 HACCP 인지도 조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하. (2008). 중학생의 가공식품 안전성에 대한 지식 및 인식수준에 따른 식생활태도의 차이.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선. (2006). 대학생의 식품위생 및 안전 의식과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Point) 인지도 조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현. (2005).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인식 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소비자원.
- 이성갑, 백병학, 유영준, 오원택, 박승남, 김명호. (2003). **식품위생과 HACCP**. 서울: 광문각.
- 정화영. (2007). **고등학생의 가공식품 이용실태와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광주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옥. (2008). **주부들의 일부 식품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인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숙, 전혜경, 황대용, 남희정. (2005). **주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성 우려의 관련 요인**.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4(1), 66-74.
- 한왕근, 이귀주. (1991).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7(4), 23-34.
- 황은진. (2008). **서울지역 가정주부의 식품위생 인식도평가 및 HACCP 인지도 조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접 수 일 : 2009. 09. 07.

수정완료일 : 2009. 10. 13.

게재확정일 : 2009. 10. 30.